

## 文 ‘안방 다지기’... 安 ‘외곽 넓히기’

민주당, 표창원 등 의원 30명 광주·전남 돌며 민심 잡기  
국민의당, 선대위·비례대표 의원들 총동원 영남권 투입

### ‘선택 2017’ 대선 D-26

‘5·9 참미 대선’의 후보 등록일(15~16일)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안방’인 호남 민심 잡기에 ‘울인’하고 나섰다. 선거 초반 호남에서 상승세를 탔던 문재인 후보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관련기사 3·4면>

반면,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의석을 대부분 석권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다소 여유로운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세가 약한 다른 지역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해철 중앙선대위 조직특보단장과 표창원·조승천 의원을 비롯한 호남 연고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동원령 대상 국회의원 숫자만 최소 20명에서 최대 3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들은 13일과 14일 이틀 간 개별적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을 돌며 바다 민심 잡기를 위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호남 지지가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목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13일 광주를 방문해 각계 인사와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과 문 후보가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은 동구 총장로와 대학가 등에서 젊은층을 상대로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프리허그’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승천 의원은 광주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여전히 반문(反文) 정서가 남아있는 중장년층을 공략하며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선거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다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구내식당에

서 배식봉사를 하는 등 이틀째 호남 민심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선대위 인선을 마친 민주당이 첫 선 거전락으로 본격적인 호남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 등록 시점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는 후보가 예외 없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안풍’(安風)을 차단하고 승기를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호남보다는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에 대한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와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 각계전투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선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연고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대선후보 등록 이후 각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랑감 있는 인사들을 영남권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연고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대선후보 등록 이후 각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랑감 있는 인사들을 영남권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연고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 대선후보 등록 이후 각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랑감 있는 인사들을 영남권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호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부터 급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 경선 이후 지역보다는 안 후보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안 어색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닷밭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

##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 내일 개막...바닷속 보물 만난다

해조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14일 ‘바닷밭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을 주제로 완도항,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달 7일까지 24일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관별로 컬러 콘텐츠를 배치해 차별화 시도한다. 특히 국내 최초 해상전시관을 포함한 5개의 전시관, 참여관, 해조류 체험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연·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바다신비관은 국내 최초 360도 워터 스크린을 이용해 해조류의 역사, 신비한 해조류 모습 등 주제 영상을 연출한다. 건강인류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조류와 인류의 삶을 조명해 바닷밭 웰빙 라이프를 선보인다. 다시마로 만든 해조류집을 전시해 인류와 함께해온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미래자원관은 해조류의 종류와 생태, 바이오연료, 화장품, 의약품 소개를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에 각광받는 바닷밭을 소개하고 국내외 바닷밭 산업현황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조류이

해관은 해조류의 분포현황, 해조류 정보 검색, 완도의 바다환경,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 등을 통해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지구환경관은 ‘해조류의 임무’라는 주제로 VR(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실제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조류를 생생하게 표현해 낸다.

이와 함께 참여관에는 국내 78개사의 해조류 업체가 입점하고 해외바이어와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개인간 비즈니스를 통해 활발한 수출상담이 이뤄진다.

또 해조류 체험존에서는 해조류요리 교실, 재래김 뜨기체험, 해조류 아이스크림 체험, 해조류 색소분리체험, 해조류체험장, 수상자전거체험 등 유료체험 13종, 무료체험 10종으로 총 2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함께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축하 공연을 비롯한 버스킹 공연, k-pop 스트리트댄스, 스트리트마임 퍼포먼스 등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이 상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제해조류학술 심포지엄 개최로 학문과 해조류 산업의 연계에도 적극 나선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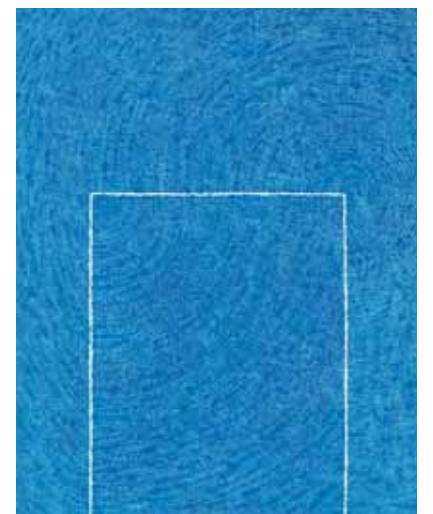
### 김환기 ‘고요’ 65억5천만원...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의 작품이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K옥션에서 열린 4월 경매에서 김환기의 ‘고요(Tranquillity) 5-IV-73 #310’가 65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옥션 홍콩경매에서 김환기의 노란색 전면점화 ‘12-V-70 #172’(가로 173cm·세로 236cm)가 기록한 63억2626만원이었다. 김환기의 작품은 1년 사이에 세 차례 낙찰가가 경신하게 됐다.

이 작품은 김환기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미국 뉴욕에서 그린 푸른색 대형 전면점화로, 가로 205cm, 세로 261cm 크기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푸른 점과 직사각형 흰색 띠가 특징이다.



김환기 작 ‘고요’

파란색은 추상화가 김환기를 대표하는 색상이다.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은 이견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 여야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

로 모아졌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헌 방향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하고 오는 2022년 지방선거와 함

께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 ☑ 특식 : 3회(오삼불고기/라비엣 레스토랑/노니보섬 정식)
- 🕒 쇼핑 : 4회

**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  
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 특식 : 2회(오삼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 쇼핑 : 3회

**무안출발 하노이 전세계 공통 혜택**

- ① 무제한 생수 제공
- ② \$50 상당 비경투어 (자유여행상품 제외)
- ③ 푸드팩트 제공 (단독여행상품 제외)

\* 푸드팩트(밥, 누룽지, 김, 스낵류)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이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이다.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전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여행 안전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